

‘전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 지원 요청

우범기 전주시장,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만나 주요 현안·선도사업 지원 강력 건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찾아 전주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13일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송호석 청장을 면담하고, 국가하천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은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와 하천기본계획,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현황, 국가하천 승격의 이점 등을 설명했다.

이에 우 시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전주천에 추가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일상을 담아낼 수 있는 수변 힐링 명소 조성이 필요한 만큼, ‘전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는 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북지방환경청을 찾아 전주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주시민들의 젖줄인 전주천과 삼천이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전시와 공민, 체

심이다.

특히 시는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한벽교에서 싸전다리 구간에 한옥마을 수변 낭만터를 조성하고, 백제교 인근에 서신 수변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등 하천 내 친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우 시장은 주요 사업내용 중 치수사업분야인 홍수방어벽과 산책로 등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에 국가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전주천과 삼천은 전주의 천년 역사를 함께해왔으며, 지금도 우리들의 일상에 소중한게 자리하고 있다”면서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명품하천을 만들어 역사문화도시, 관광도시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

전주전통문화연수원,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무료 운영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동헌 체험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점차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된다.

먼저 오는 22일에는 ‘소일 비는 정월, 세시풍속 즐기기’를 주제로 전통음식(부림, 귀밝이술, 전통차)과 전통놀이(떡치기, 제기차기, 투호, 팽이치기)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매월 △전주동헌에서 맛보는 전통간식(3월) △전주동헌에서 배우는 우리가락(4월) △단오에 즐기는 전통놀이(5월)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전주사포 다과상(6월) △전주한지에 그리는 동양화(7월) △국기무형유산과 함께하는 부채만들기(8월) △특서의 계절에 만드는 매듭책갈피(9월) △전주동헌 우리 놀이터(10월) △전주동헌에서 만

나는 자개공예(11월) 등 전통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www.dongheon.or.kr)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체험비는 무료이며, 사전 접수 시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271~4)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체험이 진행되는 전주동헌은 조선 초 건립된 조선시대 사포의 업무 공간(현재의 전주시청)으로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금암2동 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장승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30여명을 모시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다.

금암2동 지사협,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전달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관주)는 13일, 금암2동 주민센터(동장 조은숙)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금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명절마다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 전달을 하며 이웃사랑을 지속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다자녀 및 한부모가정 7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관주 금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우리 지역사회가 봉사과 나눔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왔듯이 앞으로도 더 큰 나눔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은숙 금암2동장은 “늘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연말연시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에서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영양 찰밥 봉사 펼쳐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박시용) 새마을부녀회(회장 권현숙)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관내 장승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30여명을 모시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사랑의 영양 찰밥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영양 찰밥과 각종 나물, 떡, 과일 등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현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사랑을 담아 만든 정월 대보름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올 한해도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는 경로당 찰밥 봉사활동 외에도 복지관 배식봉사, 환경정화 활동, 명절 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효자2동 박시용 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나눔 실천에 늘 앞장서는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효자2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부안 왕등도 인근 화재 선박 5명 구조... 나머지는 수색중

부안해경, 지역구조본부 최고단계 가동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왕등도 동쪽 4km 지점에서 13일 오전 8시30분께 어선 A호(34t, 근해통발, 부산선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승선원 5명(내국인 2명, 외국인 3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하여 수색 구조 작업 중(오후 2시 현재)에 있다.

승선원은 당초 11명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후 어선관계자(사무장) 및 구조자 연동에 의하면 선원 1명을 추가 승선시켜 현재 총 12명

이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은 경비세력을 급파하는 한편, 지역구조본부 최고단계인 3단계 가동에 총력 대응 중이다.

사고선박 A호는 이날 오전 7시께 격포항에서 출항 중에 중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119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승선원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선원 7명을 찾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스시스

부안군 남쪽 4km 지점서 규모 2.3 지진... 유감신고 2건

13일 낮 12시6분51초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3도이다. 발생깊이는 8km다.

지진계에 기록된 진도는 II(2)다.

전북소방본부에는 해당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신고는 김제 1건, 부안 1건으로 총 2건 접수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